

브라질, 90억배럴 매장 유전 발견

브라질 Petrobras와 PDVSA 공동개발 ... 정유시설에 25억달러 투자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공동투자를 통해 유전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강 일대에서 예상 원유 매장량이 90억배럴에 달하는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월15일 보도했다.

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bras와 베네수엘라 국영 에너지기업 PDVSA는 11월14일 대규모 유전 발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동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발견된 유전의 매장량은 지금까지 브라질 최대 매장량으로 알려진 리우 데 자네이루 인근 대서양 연안 Marlim 유전의 80억배럴을 뛰어넘고 있어 브라질로서는 주요 석유 공급원을 확보한 셈이 됐다.

양사는 새로 발견한 유전 개발계획을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코의 대형 정유시설 건설계획과 연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25억-28억달러가 투자되는 페르남부코 정유시설이 예정대로 2011년 완공되면 오리노코 강 일대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대량생산한다는 것이다.

조제 세르지오 가브리엘리 Petrobras 회장도 "Petrobras가 오리노코 강 일대의 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페르남부코 정유시설 건설 및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11월 12-13일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브라질 건설회사의 기술지원 및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통해 건설된 오리노코 강 다리 준공식에 참석하고 양국이 건설, 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6>